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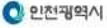


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| | 보 도 자 료 | |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|
| | | 배포일자 2021년 4월 1일(목) 총 3매 | | |
|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| 담 당 자 • 행복한인생담당 한경남 ☎440-2836 • 담당자 김숙경 ☎440-2837 | | | |
| 사 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 고 자 료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|
| 보 도 시 점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

인천시, 어르신 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확대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 우울감 해소 및 사회성 회복 기대 -
- 시 신청사, 인천가족공원 등 242명 추가 배치로 공공기관 촘촘한 방역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의 우울감 해소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「노인일자리, 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사업」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시는 앞서 시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, 4월부터 시청 신청사 및 인천가족공원 등에 총 242명의 어르신을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「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활동」에 추가 배치한다.

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및 남동구노인복지관,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시청 신청사에 130명, 시 의회 12명, 인천가족공원 5개 봉안당에 100명을 각각 배치, 어르신의 꼼꼼함을 발휘하여 촘촘한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시는 지난해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를 방문하는

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및 방문자 관리 등 방역지킴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득 보충을 지원해 왔다.

그러나 최근까지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으로 추진됨에 따라 참여 어르신의 심리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는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방역지킴이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, 그 결과 확대 추진을 결정했다.

본 사업은 지난해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만족도 조사 결과, 공공기관 업무지원은 물론 시민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.

유용수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“어르신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”며 “노인일자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소득보충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시대의 노인복지관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1:1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정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<붙임> 어르신 공공기관 방역지킴이 사진

